

웹툰 <고래별>에 나타나는 이성애 로맨스의 양상과 그 의미*

구자준**

1. 들어가며
2. 경성의 이성애 로맨스로서 '식민지 로맨스'
3. <고래별>의 장소: '물'의 군산과 '물'의 경성
4. <고래별>의 로맨스: '식민지 로맨스'의 반복과 변주
5. <고래별> 속 인어공주 모티프의 의미와 한계
6.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웹툰 <고래별>에 재현된 이성애 로맨스가 민족·젠더와 맺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 서사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경성을 배경하는 영화·드라마 속 이성애 로맨스의 전형성이 웹툰에서도 드러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작품들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고래별>의 로맨스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했다.

* 이 논문은 2024년 1월 30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3회 한국학 포럼'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발표의 멘토를 맡아 원고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셨던 이화진 선생님과 허운 선생님,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하며 원고를 검토해 주셨던 '퀴어도시 경성'팀의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

우선 2장에서는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의 마스터플롯으로서 '식민지 로맨스'라는 개념을 살핀 다음, 그 연속선상에서 웹툰 <고래별>을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고래별>의 장소 변화와 로맨스 전개 양상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웹툰이 '식민지 로맨스'를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5장에서는 '인어공주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이성애 로맨스가 이분법적 젠더 인식에 기반한 여성과 민족의 결합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물론 웹툰 <고래별>은 '식민지 로맨스'의 전형적인 젠더 구도를 반복하여 재현하면서도, 왜 여성이 조선에 헌신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한 전제로 제시되던 '조선으로서 여성'이 균열 없는 존재로만 그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성과를 거둔 작품이다. 사랑을 통해 여성 주체가 변화하는 양상을 세심하게 포착한다는 것이야말로 기존의 '식민지 로맨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웹툰의 장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작품의 이성애 로맨스를 규정짓는 인어공주 모티프는 여성 주인공이 조선이라는 대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감수하여 스스로를 민족과 동일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에서 여성과 조선의 결합이 여전히 공고하게 지속되도록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주제어: 고래별, 경성, 식민지 로맨스, 웹툰, 이성애 로맨스, 인어공주)

1. 들어가며

2019년 6월 21일부터 2021년 7월 15일까지 네이버에 연재된 나윤희

작가의 웹툰 <고래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로맨스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웹툰은 모던하지만 암울한 식민지 조선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동시에, 인어공주 모티프를 변용한 로맨스를 통해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독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작품은 2020년 오늘의 우리만화상을 수상했으며, 2025년 현재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도 제작되는 중이다.¹⁾

이와 같은 비평적·상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웹툰 <고래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 중 웹툰 <고래별>을 다룬 작품은 2025년 8월 기준으로 사실상 1편에 불과하며,²⁾ 그 외에는 만화 비평의 장에서 <고래별>의 성취를 논의하는 두 편의 비평만이 제출되었을 뿐이다. 아울러 각각의 글이 게재된 방식 및 매체의 성격이 판이하기에, 서로의 논의를 참조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편의 논의 모두 <고래별>을 식민지 조선의 여성 재현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고래별>의 드라마화는 2021년 확정되었으며 2025년 현재 배역 캐스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네이버 인기 웹툰 '고래별' 드라마로 제작>, 『연합뉴스』, 2021. 7.9.,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9033700005> (접속일: 2025. 9.10.); 윤효정, <최우식·문가영 어울릴까...드라마 '고래별' 캐스팅만으로 '핫이슈' [N 이슈]>, 『뉴스1』, 2025.8.1., <https://www.news1.kr/entertain/celebrity-topic/5866555> (접속일: 2025.9.10.)

2) <고래별>을 다루고 있는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인영,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여성캐릭터 메이크업의 실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20; 이수곤·정형근, 「문학적 담론과 역사적 담론의 나란히 서기 - 웹툰 『고래별』의 글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제16권 3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5, 451-480쪽. 다만 김인영의 연구는 <고래별>이라는 작품의 서사적·형식적 측면에 주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작품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논문은 이수곤·정형근의 연구뿐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수근·정형근의 논문은 <고래별>의 글쓰기가 지닌 특성에 주목하고 역사적·문학적·회화적 요소가 웹툰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나, 작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래별>이 “역사와 문학의 가장자리가 맞붙어 있는 임브리케이션(비늘 구조)”과 같이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있음 직한 세계’(문학)와 ‘있었던 세계’(역사)를 적절히 콜라보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웹툰의 특유의 매체적 특성이 웹툰의 서술에도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역사적·문학적·회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고래별>의 글쓰기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다. 이때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변 서사의 전경화로, 웹툰의 서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이에 가려지기 쉬운 조선 여성의 삶을 적극적으로 전경화한다.

그리고 비평의 장에서 한기호가 <고래별>의 연출을 통해 드러나는 인물들의 ‘구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바라본다면,³⁾ 최윤주는 작가 나윤희의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고래별>이 실제 목소리를 잃은 여성 주인공의 무성(無聲)의 ‘언어’를 어떻게 만화적으로 탁월하게 연출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⁴⁾ 두 비평 모두 <고래별>의 연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품이 인어공주 모티프를 활용하여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강조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풍경을 세밀하게 포착한 작품의 성취가 어떤 연출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다음, 이를 바탕으로 웹툰이 포착하는 식민지 여성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3) 한기호, 「서사와 구도로 완성한 비극의 표현 방식 : 나윤희의 <고래별>」, 『지금, 만화』 제12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109-114쪽.

4) 최윤주, 「다른 무엇 아닌, 웹툰으로 가능한 : 나윤희론」(2021 만화평론공모전 대상 수상작), 최윤주 외, 『(2021) 대한민국 만화평론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한기호와 최윤주의 논의는 <고래별>이 여성 주인공 한수아의 시점으로 독립운동을 바라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엄혹한 시기 격렬했던 투쟁의 양상을 섬세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다만 한기호는 <고래별>의 칸 연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수직적 구도가 남자 주인공 의현에게 종속된 모습을 보이는 여자 주인공 수아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⁵⁾ 이처럼 여성 주인공이 로맨스에서 종속적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이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더 깊이 논의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윤주 역시 웹툰에서 장애를 가진 하층민 여성 주인공의 목소리가 그려지는 방식에 주목하지만 로맨스의 전개 양상과 그 의미를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는다.

즉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웹툰 <고래별>이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가들을 그리면서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하층민 여성 주인공의 삶과 인식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이때 독립운동이나 로맨스가 여성 주인공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분석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 주인공 허수아가 남성 주인공 강의현·송해수와의 로맨스를 통해 민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로맨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논의의 부재는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인어공주라는 모티프가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풍부한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웹툰의 로맨스가 전개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고래별>이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의 익숙한 관습을 어떻게 반복·변주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식민지 로맨스'로 명명된 경성 배경 이성애 로맨스의 마스터플롯을 검

5) 한기호, 앞의 글, 111-112쪽.

또한 다음, <고래별>이 인어공주 모티프를 활용하여 그러한 이성애 로맨스의 전형을 어떻게 계승·변형하는가를 살필 것이다. 나아가 검토의 과정을 바탕으로 경성이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이성애 로맨스로서 <고래별>이 지닌 장점과 한계 모두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경성의 이성애 로맨스로서 ‘식민지 로맨스’

1999년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의 출간 이후 경성의 근대적 풍속이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⁶⁾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2000년대 이후의 드라마와 영화에도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다. 모던 걸과 모던 보이를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세련된 경성의 풍속과 근대적 문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새로운 유형의 역사드라마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영화 <모던 보이>와 드라마 <경성스캔들>은 민족과 모던, 로맨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로맨스’는 이처럼 변화한 경성 재현 양상을 로맨스의 측면에서 포착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근대적 향락과 조국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분열된, 흔히 경성의 모던 보이로 묘사되는 남성 주인공이 조선을 상징하는 여성과의 로맨스를 통해 조선으로 귀환하는 서사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⁷⁾ 물론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드라마들의 공통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드라마들의 장르적 특징을 로맨스를 중심으로

6) 문경연, 「식민의 시대, 애도의 드라마 -<경성 스캔들>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1호, 한국극예술학회, 346-347쪽.

7) 구자준, 「‘식민지 로맨스’의 네이션과 젠더-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2, 111-148쪽.

정의하기는 어렵다. ‘식민지 로맨스’ 역시 장르로서의 ‘로맨스’보다는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두루 발견되는 이성애 로맨스의 특정한 양상을 지칭하는 개념에 가깝다. 즉 ‘식민지 로맨스’는 일련의 작품군을 지칭하는 장르적 개념이라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 경성 배경 드라마·영화에 등장하는 이성애 로맨스의 마스터플롯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⁹⁾

유념할 점은 이때의 ‘식민지 로맨스’가 식민지 시기를 재현하는 서사에

-
- 8) 마스터플롯은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의 뼈대”를 의미한다. 서사의 ‘원형’이나 장르의 클리셰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동일하지는 않다.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 특정 사회 내의 전형적인 이야기‘들’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한 사회 내에서도 특정한 사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 이질적인 집단·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상반되는 마스터플롯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우찬제 외 역, 문학과지성사, 2010. 그러므로 이러한 마스터플롯 개념을 활용하여 특정한 장르가 로컬리티의 정서를 반영하는 전형을 이해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의 재난 서사 및 이세계물 등을 비교하여 동일한 장르의 마스터플롯이 사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양상을 검토하고 있는 박인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박인성, 「한·미·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39-85쪽; 박인성, 「한국와 일본의 판타지 장르 비교를 통한 마스터플롯 연구 -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5-40쪽.
- 9) 영문학에서 Colonial Romance는 빅토리아 시대 이국적인 ‘식민지’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제국’의 남성과 선주민 여성과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 혹은 그 변종들을 의미한다. 이때 식민지는 낯과 전형적인 로맨스를 다시 작동시키는, 제국의 성적·경제적·인종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국적인 배경으로 활용된다. Tanya Dalziel, “The Colonial Romance Novel to 1950”, Ralph Crane, Jane Stafford, and Mark Williams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Novel in English: Volume 9: The World Novel in English to 1950*,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그러므로 마스터플롯으로서 ‘식민지 로맨스’가 영문학 역사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장르와 혼동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다만 Colonial Romance가 특정한 인종을 젠더화하면서 작동한 것처럼 2000년대 한국의 ‘식민지 로맨스’ 또 조선의 여성을 민족과 동일시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시대·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라는 공간에서 젠더와 인종·민족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의 유사성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셈이다.

서 나타나는 다양한 로맨스를 폭넓게 포괄하는 대신,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의 형성과 변화 양상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해당 개념을 제시한 기존의 논의에서 명확히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식민지 로맨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경성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형성과 변화에 기반한 이성애 로맨스를 보여주고 있다. <경성스캔들>(KBS, 2007), <라디오테이즈>(하기호, 2008), <모던보이>(정지우, 2008), <암살>(최동훈, 2015), <미스터 션샤인>(tvN, 2018)과 같은 영화·드라마는 이성애 로맨스의 공간인 경성에서 모던 보이의 사랑이 지닌 가능성이 변화하고 확장되는 양상을 거듭 탐색한다. 특히 <암살>과 그 이후의 작품인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남성주인공 역할을 맡는 모던보이의 특성이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모던보이가 일본을 통한 근대의 산물과 민족을 대표하는 여성 사이에서 방황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다면, <암살>이나 <미스터 션샤인>이 제시하는 세련된 이방인(암살자/군인) 남성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로맨스를 주도한다.

그리고 이성애 로맨스를 통해 경성의 민족적 가능성을 가늠하는 서사에서, 민족에 대한 헌신은 젠더화된 사랑의 각본을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에게 있어 민족이 분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여성 인물들에게 민족은 별다른 의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련된 근대에 빠져 국적을 잃어버린 남성들은 조선 그 자체인 여성들과의 로맨스를 통해 조국으로 귀환한다. 식민 지배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남성과 조선적 여성 간의 로맨스는 조선이라는 네이션을 여성화/자연화하는 현재 한국사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¹⁰⁾

이처럼 '식민지 로맨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경성 배경의 이성애 로맨

스 서사에 내포된 다양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 이는 경성과 이성애가 식민지 시기의 재현에 있어 과도한 대표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린다. 또한 세련된 근대의 문물을 자유롭게 향유하는 인물들 사이의 로맨스가 실은 초국적 남성과 조선적 여성 간의 ‘민족적 결합’을 통해 지탱된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식민지 로맨스’라는 개념을 참조하여, 웹툰 <고래별>의 분석에 있어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가 식민지 시기 민족·젠더의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롯으로 활용되는 양상 자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¹¹⁾

물론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웹툰의 특성을 영화·드라마를 중심으로 논의된 ‘식민지 로맨스’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우선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 활발하게 창작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기에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작품군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웹툰인 <어둠이 걷힌 자리엔>(젤리빈, 2019~2020)이나 <현혹>(홍작가, 2019~2020), <경성야상곡>(김라무, 2019~2021) 등의 작품은 전형적인 이성애 로맨스를 전면에서 내세우지도 않는다. 특히 <어둠이 걷힌 자리엔>이나 <현혹>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요괴가 등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공간으로서 경성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성애의 일상적인 질서를 벗어난 사랑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 나타나는 지배적 흐름만을 참조하여 경성 배경 웹툰의 개별적 특성 혹은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고래별>은 이성애 로맨스와 민족 간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10) 구자준, 앞의 글, 111-148쪽.

11)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의 맥락에서 ‘식민지 로맨스’라는 말을 사용하되, 이 용어가 경성의 이성애 로맨스를 지칭하는 용어임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한다.

작품이기에,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드라마와의 서사적 유사성도 더 두드러지는 편이다. 즉 다른 웹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래별>은 2000년대 이후의 영화·드라마를 중심으로 대중문화 전반에 확산된 ‘식민지 로맨스’가 웹툰에도 반영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고래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식민지 로맨스’라는 개념이 웹툰에서도 유효한 참조점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동시에, ‘식민지 로맨스’를 참조하여 <고래별>의 로맨스를 바라봄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할 것인가 역시 함께 가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3장에서는 군산에서 경성으로 이동하는 허수아의 행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래가 모이는 ‘물’의 공간으로 이해되는 경성이 ‘물’의 군산과 대비되며 어떻게 의미화되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가 전개되는 양상을 살핀 다음, 5장에서는 이와 같은 작품의 이성애 로맨스에서 인어공주 모티프가 기능하는 방식과 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고래별>의 장소: ‘물’의 군산과 ‘물’의 경성

웹툰 <고래별>은 군산에서 친일파 지주 가문의 몸종으로 살아가던 하층민 여성 허수아가 강의현과 사랑에 빠지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다. 독립운동가 강의현에 반한 허수아는 그를 쫓아 경성으로 상경하고, 이후 강의현이 속한 무장투쟁단체 결사단의 회합 장소인 카페 ‘고래별’에서 일하다 점차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된다. 수아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물’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군산과 ‘물’의 공간으로 묘사되

는 경성과의 차이이다. 특히 이는 군산에 살던 허수아와 여운화 중 수아만이 군산을 벗어나는데 ‘성공’하는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작품은 17살이 된 주인공 허수아의 시점으로 시작된다. 수아의 부모는 그가 다섯 살 때 풍돈을 받고 지금의 주인집에 넘겼지만, 그럼에도 수아는 주인집 아가씨 윤화의 몸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큰 불만이 없다. 매일 아침 아가씨의 세숫물을 길어 온 다음 깨어난 아가씨에게 보고 들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고, 남은 시간에는 바다로 나가 물속을 헤엄치다 돌아오는 것이 그의 일상 전부이다. 수아는 감히 물으로 비유되는 바깥 세계로 나갈 마음을 품지 않은 채 자신은 아가씨의 세계 안에 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느 때처럼 자유롭게 헤엄치러 나간 바다에서 마치 죽은 고래처럼 바닷가로 밀려온 조선인 독립운동가 강의현과 만나게 된 다음부터¹²⁾ 수아의 일상은 크게 변하기 시작한다.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경찰에 쫓기고 있던 불령선인임을 짐작한 수아는 그를 동굴로 옮겨서 숨기고, 아는 조선인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그를 치료한다. 수아는 깨어난 의현과 대화하며 자신과 달리 물밖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아함을 드러낸다. 동경에 가고 싶지만 여인이라서 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주인집 아가씨 윤화와는 달리, 자신은 “소금기 낀 공기, 파도 소리면 그걸로 족”하다고 말하며 자신은 천상 “물고기”같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이때, 그 말을 듣던 의현은 그가 단지 물고기가 아니라 인어 공주인 것 같다고 정정하며 물의 삶에 만족한다는 수아의 말을 비튼다.

12) 웹툰 1화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다가 죽은 고래를 발견하는 수아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고래의 시체와 마주치며 물/물고기에 대한 수아의 내레이션은 중단되고 만다. 이후 시간이 지나 수아는 바닷가에서 정신을 잃은 의현을 발견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물/물고기에 수아의 내레이션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고래와 의현의 모습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웹툰의 연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였군요. 꼭 인어공주 같았지요. (중략) 처음 수아 아가씨를 봤던 날, 제 눈에는 꼭 인어공주인줄로만 알았습니다. 물고기 공주님이라고 하니, 꼭 수아 아가씨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래별> 4화)

이처럼 의현은 자신이 ‘그냥 똑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수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인어공주에 대한 환상을 통해 평범한 조선인을 자처하는 수아라는 여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현신을 바라본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신이 인어공주와 같다는 의현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작용하며 수아가 계속 그 말의 주위를 맴돌게 한다. 의현의 말은 수아에게 바깥 세계에 대한, 그리고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아함과 동경을 심어준다. 수아와 같이 물의 세상을 궁금해 하지 않고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현·윤화처럼 처음부터 물으로 나가거나 물을 답답하게 여기는 이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는 것이다.

물론 물이 누구나 꿈꿀만한 곳은 아니다. <고래별>의 물은 시골/자연에 대비되는 더 넓은 바깥 세계인 동시에, 자연과 단절되고 생명의 근원을 상실하여 모두가 점점 죽어가는 (혹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고래들의 공간이며, 구술적 언어의 편안함에서 벗어나 문자를 배우면서 진입하게 되는 상징적인 세계이자, 독립을 위한 격렬한 투쟁과 일본 제국의 무자비한 탄압이 교차되는 잔혹한 현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윤화와 같은 이들은 물을 동경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살라고 강요하는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군산과 달리, 물으로 비유되는 경성은 어쨌든 주체적인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장소이기도 하다. 비극은 물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이는 길을 찾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물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물으로 향하

게 된다는 점이다.

총상을 회복한 의현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다음, 의현의 사라짐에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낀 수아는 그가 비상시를 대비해 남긴 말을 떠올리며 결사단의 비밀 접선지인 금화 여관으로 향한다. 여관에서 수아는 의현의 결사단 동료 송해수와 마주치게 되지만, 의현의 행방을 알 수 있기를 바라던 수아의 기대와 달리 해수는 그에게 억지로 '조달'(양젓물)을 먹여 입을 막는다.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수아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흘릴 수 없도록 죽거나 목이 상하도록 만든 것이다. 수아는 간신히 살아나지만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잃는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는 수아가 군산을 떠나서 더 큰 세계로 나가는(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문자를 배우게 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목소리를 잃은 채 예전과 같이 물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경찰 간부와 의 결혼을 앞두고 자살을 결심한 여운화는 수아가 군산 바깥으로 떠날 수 있도록 돕는다. 말을 할 수 없는 수아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몸종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운화는 자신과는 달리 수아라도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결국 수아는 자신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고 느끼며, 의현에 대한 그리움과 해수를 향한 복수심을 품고 결사단의 은신처인 경성의 찻집 '고래별'로 향한다.

이처럼 <고래별>은 주인공 수아가 상경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공간인 군산과 물의 공간인 경성을 대비하여 제시한다. 수아는 운화를 통해 모두가 자신처럼 물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음을 느끼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조차 더는 물속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경성은 이처럼 자신들이 살아가던 물, 즉 터전을 잃거나 떠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넓은 세계이다. 그리고 이처럼 물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민족에 대한 고민과 이해 역시 물에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경성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민족에 대한 자각이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성은 더 큰 삶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고래별>에서 그 가능성은 로맨스를 경유한 민족과의 조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물로서의 경성은 사실 민족적 로맨스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과 로맨스는 경성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4. <고래별>의 로맨스: '식민지 로맨스'의 반복과 변주

물론 도시에 낯선 이에게는 경성으로 진입하는 일조차 녹록치 않다. 수아는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소매치기를 당하며 소지금과 패물을 잃어버리고 만다. 누구와도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수아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첫날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지나가던 학생 이건의 도움으로 간신히 카페 '고래별'에 들어온다.

그러나 자신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고래별'에 들어온 이후 수아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다. 해수와 의현 모두와 재회하고 복수의 기회를 얻지만, 그는 바로 복수하는 대신 '고래별'의 직원으로 일하며 글을 배우고 결사단원들을 지켜보는 것을 선택한다. 수아는 결사단원들을 가까이서 접하면서 그들이 왜 독립에 투신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 해수조차 자신처럼 사람의 얼굴을 가진 조선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¹³⁾ 의현에게서 글을, 해수에게 총을 다루

13) 중반 이후 친일파인 강근형이 아들 강의현의 뒤를 밟으면서 결국 고래별이 결사단원

는 법을 배우며, 수아는 그 둘 모두로부터 연모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수아를 '고래별'까지 안내해 준 학생 이건 역시 고래별에서 우연히 마주친 결사단원 한연경에게 반한다. 한연경은 군산에서 강의현과 헤어져 위기에 처했던 송해수를 구한 다음, 송해수가 신분을 숨기고 경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내로 위장하여 함께 상경한 인물이다. 하지만 연경 역시 임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군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결사단원으로서는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성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경에게 반한 이건이 계속해서 그를 보러 거듭 고래별을 방문하면서, 이건만의 감정이기는 하나 여기서도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 싹튼다.

좁게는 찻집 '고래별', 넓게는 경성 전체가 이성애에 대한 사랑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구별되지 않고 섞여서 부풀어 오르는 로맨스의 공간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이처럼 <고래별>에서는 수아와 의현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삼각관계와 한연경을 향한 학생 이건의 짝사랑이 교차되어 전개되면서, 민족과 로맨스 역시 더욱 강하게 결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학생이라는 신분을 핑계로 조국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유예하던 이건은 연경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 더 민족을 위한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연경을 상하이로 떠나보내는 날, 마침내 이건은 조선과 연경을 동일시하기에 이른다. 우유부단한 식민지 엘리트인 남성 주인공이 조선을 상징하는 여성과의 사랑을 통해 조국으로 귀환한다는 점

의 은신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경찰의 습격을 받아 결사단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수아는 총상을 입은 해수와 함께 새로운 은신처인 절로 숨고, 동지들의 신뢰를 잃은 의현은 다시 본가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다음 기회를 엿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수아는 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끼다 조선으로 돌아와 친일파인 아버지 강근형과 대립하는 의현뿐만 아니라, 연해주 참변 때 가족과 고향을 잃고 경성으로 와 결사단원이 된 해수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게 되면서 그를 이전처럼 미워할 수만은 없게 된다.

에서 ‘식민지 로맨스’의 전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서사에서 더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수아와 의현의 로맨스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작품에서 거듭 강조되는 인어공주 모티프는 프롤로그에서부터 이미 예고된 로맨스의 삼각구도에 대해 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측을 이어가게 한다. 예컨대 수아의 아가씨 여운화가 처음 의현을 만난 순간 독자들은 윤화가 바로 인어공주 모티프의 이웃집 공주가 아닐까 추측하고, 이후 윤화가 극에서 퇴장한 다음에는 의현의 정혼자 이주인 하루코가 이웃나라 공주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강의현(왕자)-이주인 하루코(이웃나라 공주)-허수아(인어공주) 간의 ‘표면적’인 삼각관계와 더불어, 인어공주 모티프를 변용한 강의현(왕자)와 송해수(마녀), 허수아(인어공주) 간의 또 다른 삼각관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암시되며 로맨스의 모호성을 부풀린다.¹⁴⁾

이처럼 고래별과 경성의 인물들은 모두 자신만의 사랑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어떤 사랑도 정말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삼각관계의 핵심에 있는 의현이 진정으로 연모하는(혹은 스스로 연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조선밖에 없기 때문이다.¹⁵⁾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기 이전에 조선이니깐요. 조선은 내게 어머니이고, 벗이고, 형제이고, 그리고... **연인입니다.** 어느 여인이 이보다 더 내 애를 녹이고 피를 꿰게 할 수 있을까요. 조선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도리요, 명분이 됩니다. 그게 나의 대답입니다. (강조는 원문, <고래별> 66화)

14) 개별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마다 등장하는 동화 <인어공주>에 대한 삽화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바다 마녀의 입맞춤’ 에피소드의 마지막화인 8화에는 송해수가 <인어공주>의 마녀가 그려진 삽화가 등장한다.

15) 그렇기에 ‘후기’에서 작가가 직접 밝힌 것과 같이, 웹툰이 그려내는 삼각관계는 사실 조선이라는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두고 형성되는 것에 가깝다.

의현이 군산의 평범한 '몸종'이었던 수아를 인어공주로 명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처음부터 조선에 대한 사랑에 빠져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의현은 언제나 조선에 대한 환상을 통해 수아를 바라보고, 마치 조선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기에 의현이 조선의 민중과 수아를 겹쳐서 바라보는 순간에도 수아는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하며, 의현 역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전처럼 수아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다. 결국 조선을 향한 사랑은 한 개인을 향한 연정을 뛰어넘어야 한다.¹⁶⁾

이처럼 조선에 헌신하고자 현실에서의 사랑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연경과 의현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인물이 사랑에 빠진 여성과 조선을 동일시하는 태도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점이 연경을 통해 조선을 떠올린 것처럼, 의현 역시 수아를 바라보며 조선과 동일시한다. 의현과 수아의 사랑이 끝내 이어질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의 수아가 조선과는 완전히 동일시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익숙한 식민지 로맨스에서 사랑하는 여성에 의해 갑작스럽게 다시 조선인으로 호명되었던 '모던보이'들의 선택을 떠올리게 만든다. 예컨대 영화 <모던보이>에서 남성 주인공 이해명(박해일 扮)은 조선과 겹쳐지는 여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으로 귀환하지만, 귀환의 순간 다시 '조선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현실에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포기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해명과 달리 의

16) 이는 이후 수아를 사랑하게 되는 해수와 같은 남성에게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의현이 수아를 '인어공주'로 명명한다면, 해수는 수아가 러시아 민간 신화에서 사랑 때문에 녹고 마는 눈소녀인 '스네그로치카'와 닮았다고 생각한다. 즉 의현과 해수 모두 환상적인 대상을 경유하여 수아에 대한 사랑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수아를 사랑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거나 녹아버리는 존재로 가정함으로써 현실의 사랑이 결국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한다고 생각한다.

현은 처음부터 조선을 향한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진정으로 민족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민족을 외면하던 모던보이나 동경 유학 중에 처음으로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접한 도련님 모두,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을 꼭 닮은 여인부터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고래별>은 '조선을 상징하는 여성'에 대한 환상에 빠진 의현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웹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현의 말이 수아의 변화를 촉발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식민지 로맨스'에서 여성들이 언제나 처음부터 조선의 편으로 그려졌던 것과는 달리,¹⁷⁾ <고래별>은 여성 인물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이유와 과정을 그려내는 데 집중한다. 수아는 의현에 의해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인어공주로 명명되지만 사실 그 의미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며, 인어공주로 호명되고 난 다음에야 자신이 '진정' 인어공주일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자신의 바다를 잃고 경성으로 상경한 후, 왜 자신이 인어공주로 명명되었는가는 수아에게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질문으로 남는다. 수아는 복수와 용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의현은 왜 그토록 조선을 사랑하는가를 고민하며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변하고자 한다. 웹툰은 이성에 로맨스의 구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남성 주체의 몫으로만 남기지 않는다. 성찰을 통한 성장은 모던보이만의 과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고래별>에서 제시되는 또 다른 로맨스, 한연경과 이건의 사랑에서도 여성 인물의 주체적 선택과 결단은 더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

17) 예컨대 영화 <모던보이>의 로라/조난실(김혜수 扮),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쿠토히나(김민정 扮)와 고애신(김태리 扮), <경성 스캔들>의 차송주(한고은 扮), <암살>의 안윤옥(전지현 扮)과 같은 여성 인물들은 다양한 국적의 복장을 갈아입으며 스스로의 존재를 감추지만, 서사가 진행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조선만을 위하는 존재였다는 것이 밝혀지는 양상을 반복한다. 구자준, 앞의 글, 138-143쪽.

다. 수아와 달리 연경에게는 “왜 그가 그토록 ‘극단적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하는가?”가 주변인들의 질문과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는 아직 젖을 떼지도 못한 아이의 몸에 결사단의 폭탄을 둘러서 경찰의 감시를 피하는 데 성공하며,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향할 때에도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등의 비정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곤 했던 ‘모성’이 독립운동에 대한 헌신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작품은 한영경과 다른 결사단원이 왜 같으면서도 다르게 대우받는가를 질문하고자 시도한다. 이것은 단지 한영경과 조선을 동일시하는데 그치는 대신, 한영경이 그토록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웹툰 <고래별>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풍경과 그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윤리적인 딜레마를 세심하게 재현한다. 이는 경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성애 로맨스의 환상을 반복하는 동시에, 그 환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까지 보여주는 웹툰의 이중적인 재현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기도 하다. 삼각관계의 끝없는 변주와 로맨스의 지연에서, 왜 자신이 조선과 동일시되는지 모르는 이의 거듭된 의문을 통해서 환상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고래별>이 보여주는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이성애 로맨스의 대상이 여전히 주체와 민족 사이에서 ‘사라지는 매개자’로 작용한다는 사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어공주 모티프는 플롯에서 이러한 이성애 로맨스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물론 로맨스의 흔적은 결말에서 마치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인어공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고래별>의 인어공주 모티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5. <고래별> 속 인어공주 모티프의 의미와 한계

‘경성의 인어공주’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래별>은 인어공주 모티프를 적극적으로 방식으로 드러내며 작품의 로맨스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여러 회차 분량으로 진행되는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웹툰은 말미에 동화 속 인어공주 삽화를 보여주면서 작품의 서사가 동화 인어공주의 어느 부분과 호응하는가를 알려준다. 나아가 작품 속 인물들은 직접 동화 인어공주에 관해 얘기하기도 한다. 의현은 처음 만난 수아에게 인어공주를 닮았다고 말한 다음(4화), 목소리를 잃은 수아에게 차라리 물속이었으면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한다(27화). 그리고 이후 글을 배운 수아는 의현에게 인어공주를 읽고 싶으니 책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며(44화), 계속해서 왜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될지언정 왕자를 구해내고자 했을까 의문을 품는다.

“내가 죽어 사랑하는 이가 살아난다면 그 틀림없는 약조만큼 귀한 것이 있을까? 알량한 목숨 하나만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게 더 괴로웠을거야.”(50화) 그렇기에 인어공주의 희생에 대한 의현의 이러한 대답은 수아의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된다. 계속해서 의현의 보호를 받는 대신, 수아는 각성의 과정을 거쳐 오히려 의현을 위한 희생을 감수하기에 이른다. 이후 <고래별>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수아가 조선을 위해 스스로의 희생을 각오하고 독립 운동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겪은 성장의 과정과 선택의 순간을 들려준다. 의현이 스스로의 죽음을 각오하고 거사를 준비하는 걸 알고, 수아는 그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편지를 남기고 자신이 대신 현장으로 떠난다. 회차 전체의 이미지가 의현에게 보내는 수아의 편지로 구성되는 104화는 ‘인어

공주'라는 호명이 수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드러낸다.

그래. 당신을 갓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나를 두고 인어 공주라 했지./허리 위로는 사람./아래로는 물고기 꼬리를 단 공주님./그래요, 나는 물고기와 같아/내 목소리는 물의 사람에게 닿지 않아요. 당신은 영영 듣지 못하겠지요./“내가 불어넣은 숨으로 다시 얻은 생이라면”/“그 삶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중략) “인어 공주는 어떻게 되었나요?”/그 답을 나는 반만 알게 된 것 같소./목소리를 잃은 채 바다를 떠나고 물의 사람을 사랑했지만/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는 것을./물의 사람은 마음 속에 품은 이가 있었으니/그것은 감히 돌이킬 수도./꺾을 수도 없는 것이었소./“동이 틀 때까지 왕자를 죽여라.”/“그러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된다.”/그것은 저주요, 구원이 아니었을 테요./그러하여 기필코 물거품이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안고 갈 몫일 것입니다./하지만 나는 어쩐지/그걸로 끝이 아닐 것만 같아요./당신이 내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해 주었고./벗은 발에 신을 신겨 주었고./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나는 우리 아가씨의 손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으니까요./그 때문에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내 핏줄에 바닷물이 흐르는 것처럼./당신의 몸 속에는 일평생을 앓은 애달픈 이가 있다는 것을 나 이제는 알아요./왜 모두들 그냥 살아지지가 않는 건지./이깎 것은 중하지 않다는 듯 몸을 내던지는지.../무섭고 독한 눈을 하고서는/그저 부딪히듯 스러지는 이유를/이제는 압니다./그것을 안 기쁨이 있으니./혹여라도 나를 위해 서러워 하지는 마오./당신은 언젠가/애달픈 이의 품에 안기시오. (<고래별> 104화)

편지에서 수아는 왕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어공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안, 자신 역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인어공주가 스스로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자 역시 자신만큼이나 애타는 마음으로 조선을 연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

기 때문이다. 수아가 그 사실을 깨달은 ‘기쁨’의 순간 왕자의 소망은 더는 그 혼자만의 꿈이 아니게 된다. 수아는 의현에 대한 사랑을 통해, 조선을 향한 의현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처럼 <고래별>은 인어공주라는 호명이 점차 자기실현적인 예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수아는 결국 의현이 원하는 조선을 자신이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물거품’이 되는 것을 선택한 수아의 선택은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 자신과 조선 사이의 간극을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사랑의 선언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기에 수아는 “기필코 물거품”이 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닐 것만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을 소멸시키면서 조선과의 동일시를 완성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허수아의 선택은 후기 칸트의 숭고 개념에 관한 주판치치의 해석을 떠올리게 한다. 주판치치에 따르면 숭고는 숭고의 감정으로써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불안을 봉합하는 나르시시즘적 만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왜소함을 ‘자각’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희생을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체는 보잘 것 없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을 통해 생겨난 불안을, 자신보다 더 큰 가치에 대한 숭고한 헌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는 “사물의 외상적 근접성에 직면하며, 새로운 거리를 도입”함으로써 초자아를 보호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¹⁸⁾

18) 아울러 주판치치는 숭고와 불안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불안의 감정을 숭고(고양됨das Erhabene)의 감정으로 ‘해소’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연관된 숭고성(고양)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숭고의 감정은, 그것의 반면은 언제나 일종의 불안인 바, 주체에게 자신의 일부를 외래적 신체로서, 그녀가 아닌 ‘외부 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간주하기를 요구한다.”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칸트와 라캉』, 이성민 역, 도서출판 b, 2004, 235-238쪽.

즉 자신을 물고기로 비유하던 허수아는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조선 그 자체인 여성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는 우리 시대의 묘사 속에 숨은 균열(불안)을 드러내지만, 균열은 다시 스스로가 물거품으로 사라질 운명인 인어공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승고'한 선택을 통해 감추어지고 만다. 이는 수아에게 주어진 모든 여정의 가능성이 결국 복수를 위한 결의로 수렴되고 민족을 위한 희생으로 고양되는 작품의 서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군산의 '아가씨' 문화는 수아를 향해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무엇이든 되라고 당부하지만, 경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수아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가능성을 헤아리는 대신 물을 떠난 자신이 아는 곳은 하나밖에 없으니 죽으러 가는 그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15화) 이러한 수아의 내면은 구술적인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문자와 기호로 가득 찬 도시로 진입하는 자신의 여정을 폭력적으로 요약하는 것으로, 그 시점부터 이미 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경성(京城)이 아닌 고래별(鯨星)에 대한 탐구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사실 1화에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고래별>의 1화, 테두리선 없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첫 칸은 투과되는 빛이 유려하게 묘사되는 넓은 물로 가득하다. 수아는 그 안을 자유롭게 유영하며, 움직임에 따라 물의 세계가 시점과 방향의 제약 없이 넓게 펼쳐진다. 흐름에 몸을 맡기며 수아는 물고기와 닮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핏물의 흔적은 움직임과 생각 모두를 멎게 한다. 이제 수아에게 가능한 행동은 자신의 말을 자유롭게 토로하기를 그만두고 피의 흔적을 따라 물으로 향하는 일밖에 없다. 수면 위에서 수아는 죽어 물가로 밀려온 고래의 사체를 발견하고 만다. 마치 이제 수아에게도, 죽은 고래들이 모이는 고래별로 향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처럼(<그림 1> 참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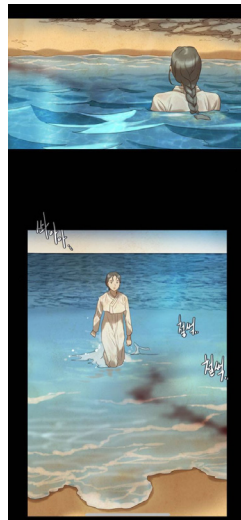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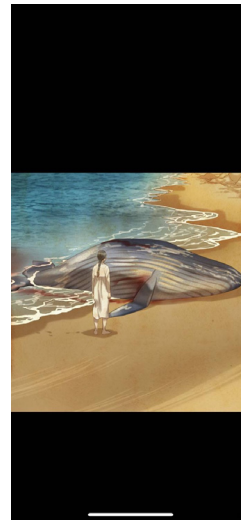
③



④



⑤



<그림 1> 1화의 도입부

이처럼 <고래별>의 인어공주 모티프는 하층 계급의 장애 여성인 수아가 로맨스를 통해 변화하는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다. 아울러 인어공주 모티프를 통해, 수아가 겪는 목소리의 상실 역시 결핍과 불행의 상징으로만 의미화되지 않는다. 장애는 또 다른 소통 방식(손짓과 글)에 대한 학습의 계기로, 나아가 물의 세계에 진입하여 조선이라는 동질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전환되고 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백정이고 노비였던 남성들이 어떻게 다시 민족으로 귀환하는가를 보여준다면,¹⁹⁾ 웹툰 <고래별>은 인어공주로 명명된 여성이 왜 스스로가 민족과 동일시되는가를 반문하며 탐구하는 과정을 그려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아가 마침내 스스로를 인어공주와 동일시하게 되는 순간, 민족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완성되며 조선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과 균열 역시 다시 사라져 버리고 만다.

6. 나가며

이 글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가 한국 대중문화에서 재현되는 맥락을 바탕으로, 웹툰 <고래별>에서 로맨스가 제시되는 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고래별>은 지금까지의 '식민지 로맨스'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여성 주인공의 내면과 성장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의의를 지닌 작품이다. 웹툰은 여성과 조선의 동일시가 언제나 자연스러운 것일 수는 없다는, 당연하지만 이상할 만큼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문제를 세심하게 짚어낸다. 나아가 장애를 지닌 식민지 하층 계급 여성인 수아

19) 구자준, 앞의 글.

가 ‘자신의 말’과 민족에 대한 탐색을 통해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여성 주인공의 성장 과정에서는 익숙한 식민지 로맨스의 구도가 반복되지만, 동시에 <고래별>은 이러한 식민지 로맨스가 기대고 있는 환상이 무엇인가 역시 함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족적 주체로서 여성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된 이성애 로맨스의 구도는 결국 모든 사랑의 결말을 민족으로 향하게 만든다. 이전의 ‘식민지 로맨스’가 사랑하는 여성에게서 ‘조선’을 발견하는 환상을 바탕으로 남성 주체가 다시 민족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그려낸다면, <고래별>은 남성적인 환상의 구조 속에서 조선으로 호명된 여성 주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에게 붙은 조선이라는 이름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고래별>의 로맨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삼각 구도의 ‘식민지 로맨스’에서 민족을 향한 추상적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네이션과 젠더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성별화된 인식에 기반한 로맨스 없이는 민족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으로 말하면 로맨스에서 여성 주체는 민족으로 향하게 만드는 ‘사라지는 매개자’로 기능할 뿐이라는 점에서,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이성애 로맨스가 지닌 가능성은 <고래별>에서도 새롭게 열린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즉 웹툰 <고래별>은 ‘식민지 로맨스’의 전형적인 젠더 구도를 반복하여 재현하면서도, 왜 여성이 조선에 헌신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탐구하면서 지금까지 당연한 전제로 제시되던 ‘조선으로서 여성’이 균열 없는 동일한 존재로만 그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사랑을 통해 남성 주체가 아닌 여성 주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세심하게 포착한다는 것이야말로 이 작품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작품의 이성애

로맨스를 규정짓는 인어공주 모티프는 여성 주인공 수아가 조선이라는 대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감수하여 '물거품'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 이는 경성을 배경으로 한 서사에서 이루어지는 이성애 로맨스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 어쩌면 그런 탐색을 가장 정교하게 수행하고 있는 <고래별>과 같은 작품에서조차 - 여전히 여성과 조선의 공고한 결합에 대한 확인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나윤희, <고래별>, 네이버웹툰, 2019-2021.

2. 논문과 단행본

구자준, 「'식민지 로맨스'의 네이션과 젠더-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8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2, 111-148쪽.

김인영,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여성캐릭터 메이크업의 실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20.

문경연, 「식민의 시대, 애도의 드라마 -<경성 스캔들>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41권, 한국극예술학회, 2013, 345-378쪽.

박인성, 「한·미·일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 비교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0, 39-85쪽.

_____, 「한국과 일본의 판타지 장르 비교를 통한 마스터플롯 연구 -이세계물과 그 파생 장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81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5-40쪽.

이수곤·정형근, 「문학적 담론과 역사적 담론의 나란히 서기 - 웹툰 『고래별』의 글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제16권 3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25, 451-480쪽.

최윤주 외, 『(2021) 대한민국 만화평론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알렌카 주판치치, 『실재의 윤리: 칸트와 라캉』, 이성민 역, 도서출판 b, 2004.

H. 포터 애벗, 우『서사학 강의』, 찬재 외 역, 문학과지성사, 2010.

Ralph Crane, Jane Stafford, and Mark Williams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Novel in English: Volume 9: The World Novel in English to 1950*,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 기타자료

한기호, 「서사와 구도로 완성한 비극의 표현 방식 : 나윤희의 <고래별>」, 『지금, 만화 발간위원회, 『지금, 만화』 제12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Abstract

The Aspects and Significance of Heterosexual Romance in the Webtoon *Whale Star*

Koo, Ja-Jun(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eterosexual romance and nation/gender as represented in the webtoon *Whale Star* (Goraebyeol),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heterosexual romance narratives set in colonial Seoul (Gyeongseong). In doing so, it considers whether the conventional patterns of heterosexual romance often depicted in films and dramas set in Gyeongseong are also reproduced in webtoons. Furthermore, by situating *Whale Star* within the intertextual network of other works set in Gyeongseong, this paper seeks to broaden the horizon of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webtoon's portrayal of romance.

Chapter 2 reviews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colonial romance” as a masterplot of heterosexual romance in colonial Seoul and discusses how *Whale Star* may be examined within this framework. Chapters 3 and 4 analyze the spatial transitions and narrative development of romance in the webtoon, focusing on how it reworks the “colonial romance.” Chapter 5 critically examines the motif of “The Little Mermaid,” arguing that *Whale Star*'s heterosexual romance reinforces the coupling of women and the nation based on a binary gender perception.

At the same time, however, while the webtoon reiterates the typical gender dynamics of “colonial romance,” it also interrogates why women devoted themselves to Chosŏn, highlighting the impossibility of portraying “woman as Chosŏn” as a seamless, homogeneous entity. The webtoon's strength lies in its nuanced depiction of the female subject's transformation through love—something rarely observed in conventional “colonial romance.” Yet, insofar as the

mermaid motif frames heterosexual romance as the female protagonist's noble sacrifice for the greater cause of the nation, the webtoon ultimately reaffirms the enduring association between women and Chosŏn in heterosexual romances set in Gyeongseong.

(Keywords: *Whale Star*, Gyeongseong, colonial romance, webtoon, heterosexual romance, Little Mermaid motif)

논문투고일 : 2025년 9월 10일

논문심사일 : 2025년 10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20일